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7월 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전력진흥과 최규종 과장, 이종배 사무관(2110-4675)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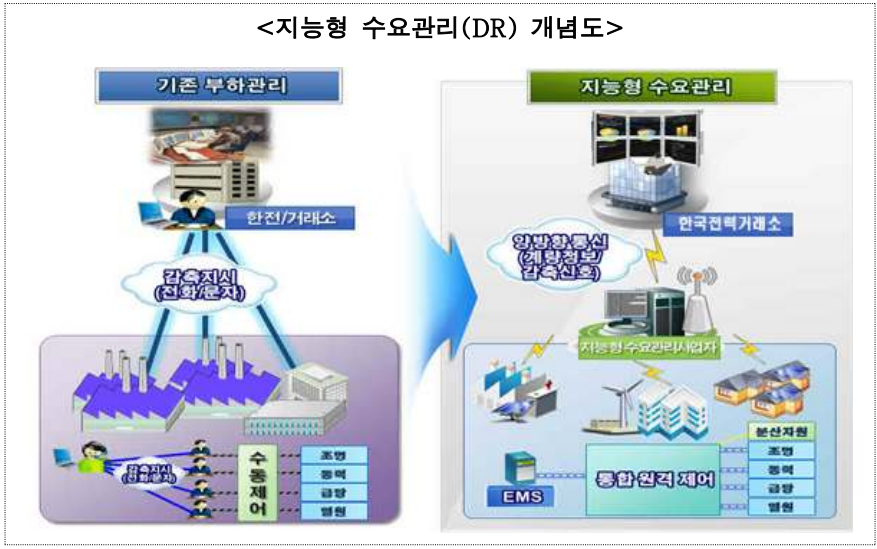
7월부터 지능형 수요관리(DR)로 스마트그리드 확산

- 중소형 수요자원 467개소 참여, 1만5천 가구분(45MW) 피크절감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: 홍석우)는 스마트계량기 등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수요감축이 가능한 지능형 수요관리*(DR : Demand Response) 프로그램을 7월1일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힘

* 지능형 수요관리 : AMI(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, 스마트계량기), EMS(Energy Management System, 에너지관리시스템) 등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이용, 1시간 이내(30분전 지시+30분이내 이행) 감축시스템 구축

<지능형 수요관리(DR) 개념도>



□ 이번 시범사업은 24.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력거래소를 통해 시행하며, (주)케이티 등 6개 지능형 수요관리사업자가 참가

○ 지능형 수요자원으로 홈플러스, 이마트, 롯데마트, KT통신국, GS타워 및 포스코센터 등 467개소가 참여하여 스마트계량기 등을 사용하여 1만5천 가구분(3kW기준)의 부하절감이 가능

'12년도 지능형 수요관리 참여현황

구분	수요관리사업자	용량(kW)	비 고
1	(주)케이티	24,006	('13년 참여준비중) LG C&S, 한전KDN, 삼성SDS, 한국하니웰, LG유플러스, 한화S&C, 삼인제어시스템, 금호E&G, 누리리소스, 엑서지엔지니어링, 옴니시스템, 존슨콘트롤즈코리아, 우암 등
2	(주)아이디알서비스	11,278	
3	(주)서브원	4,958	
4	벽산파워	2,597	
5	한국산업기술컨설팅	1,110	
6	SK텔레콤	990	
계		44,849	

분류별(kW)				용량별(kW)		
산업용	소형(12개)	4,311	9.6%	1~99	20,051	44.7%
일반용	건물(50개)	6,279	14.0%	100~199	5,868	13.1%
	유통업(294개)	17,028	38.0%	200~299	5,780	12.9%
	통신국(81개)	17,231	38.4%	300~399	3,224	7.2%
계	467개	44,849		400~1,000	9,926	22.1%

* 주요자원 : 홈플러스(123개소), 이마트(118개소), 롯데마트(83개소), KT통신국(81개소)

□ 지식경제부는 연말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, 스마트계량기(AMI), 에너지저장장치(ESS) 등 보급사업*과 연계하여 지능형 수요자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

* '12년 보급계획 : AMI(스마트계량기) 5천호, ESS(Energy Storage System, 전기를 저장하여 피크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장치로, 배터리·변환장치·운영시스템 등으로 구성) 1MWh를 상가·아파트형공장 위주로 보급 예정